# 성불의 인연은 누구에게나 있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⑱ 8세 용녀의 성불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그대가 용궁에 가서 교화한 중생의 수효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그 수가 한량없어서 얼마라고 헤아릴 수 없으며, 마음으로 추측하지 못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바다로부터 솟아 나와 영축산으로 가 허공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이 모두 문수사리가 교화 제도한 보살이었다. 보살행을 갖추어 다함께 6바라밀을 설하며,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에 있으면서 성문행을 설하고 있더니,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의 도리를 닦고 있었다.

문수사리가 지적보살에게 말했다.

"바다에서의 교화는 이와 같습니다."

그때 지적보살이 게송을 설해 찬탄하였다.

"큰 지덕 대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니 이제 대중들과 내가 다 이미 보았나이다. 실상의 뜻 펴시며 일승의 법 밝히어 중생을 인도해 빨리 깨달음 이루게 하셨나이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내가 바다 속에서 오직 법화의 가르침을 항상 설했나이다."

지적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이 경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경전 중의 보배라. 세상에서도 희유한 바이니, 더러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빨리 부처가 된 사례가 있나이까?"

문수사리 말했다.

"있습니다. 사갈라용왕 딸은 나이 겨우 8세였는데도 지혜롭고 명민하여 중생의 여러 근기의 행업을 알며, 다라니를 얻어 부처님들이 설하신 매우 심오한 비밀장을 다 능히 수지하며, 깊이 선정에 들어 제법에 통달하고,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어 막힘이 없으며, 중생을 생각하되 갓난아기 같이하며, 공덕을 갖추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마음씨가 상냥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적보살이 말했다.

"제가 석가모니여래를 뵈옵건대, 한량없는 겁을 걸쳐 난행과 고행으로 공덕을 쌓아 보리를 구하시되, 일찍이 그치는 일 없으셨으니, 삼천대천세계를 둘러보심에 겨자씨만큼이라도 이 보살이 중생을 위해 목숨 버린 곳 아님이 없었나이다. 그런 뒤에야 보리를 이루셨나니, 이 소녀 잠깐 사이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나이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용왕의 딸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게송을 설해 찬탄하였다.

"죄와 복의 모습을 통달하여 두루 시방 비추시니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 삼십이상 갖추시고 팔십종호로 법신을 장엄하시니 인간과 천상이 우러러 받들며 용신들도 모두 공경하고 숭배하지 않는 중생 없나이다. 또 법을 들고 보리 이룬 것은 부처님께서만 아시나니, 제가 대승의 법을 열어 괴로운 중생들을 건지오리다."

문수보살이 용궁에서 제도한 중생의 수가 얼마냐고 묻는 질문이 나온다. 그 수가 말할 수 없이 많아 알 수가 없다 하자 연꽃에 앉은 보살들이 바다에서 떠올라 영축산으로 허공에 머물렀다. 문수는 용궁에서 〈법화경〉을 설했다고 말한다. 용궁은 용왕이 거처하는 궁전이지만 불법(佛法)이 비장(秘藏)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말이다. 〈화엄경〉도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용궁장래설(龍宮將來說)이 있다. 이 장(章)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8세 용녀(龍女)의 성불' 이다. 사갈라 용왕의 8세 된 딸이 법화 일승법문을 듣고 성불했다는 것이다. 선가(禪家)의 돈오설(頓悟說)에도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영가진각의 〈증도가〉에도 나오고 대혜 종고의 〈서장(書狀)〉에도 나온다. '8세의 용녀가 어떻게 성불했나?' 의문을 품으면 하나의 화두가 되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화경〉은 성불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일체중생이 존재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불의 인연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용녀도 사람의 몸으로 변신하여 성불했다고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성품 청정해야 악행 떨치고 선행 실천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⑱ 십종청정계

누구든지 선행을 하면 은근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선행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왜 선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실망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행의 동기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 에서는 "모든 악을 저지르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한다. 이 게송에서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은 대승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과보(果報)를 구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 일 것이다. 다시 말해 대승불교에서는 좋은 결과를 바라는 선행보다는 순수한 동기에 의한 선행을 장려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한 초기 대승경전으로 〈화엄경(華嚴經)〉을 꼽을 수 있으며, 계(戒)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품에 산발적으로 보인다. 특히 십선업도(十善業道)와 관련된 내용은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 , '십지품(十地品)' , '이세간품(離世間品)' 등에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십지품' 에서는 십지(十地) 가운데 제2지인 이구지(離垢地)에서 십선업도를 행하고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로 모든 번뇌를 여읜다고 설한다. 또 '보살이 계바라밀(戒波羅蜜)을 행하는 이구지에서 스스로 십선(十善)의 청정한 계를 가져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하고, 일체 중생에게 가엾은 생각을 일으켜 마음 깊숙이 자비심이 일어나도록 세 가지 청정한 계[三種淨戒]를 갖추어야 한다' 고 설한다.

또 '십무진장품' 에서는 계장(戒藏), 즉 10가지 계를 설한다. ①널리 이롭게 하는 계[普饒益戒], ②받지 않는 계[不受戒], ③머물지 않은 계[不住戒], ④뉘우침이 없는 계[無悔恨戒], ⑤어기거나 다투지 않는 계[無違諍戒], ⑥시끄럽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계[不損惱戒], ⑦섞임이 없는 계[無雜穢戒], ⑧욕심내어 구함이 없는 계[無貪求戒], ⑨과실이 없는 계[無過失戒], ⑩헐고 범함이 없는 계[無毁犯戒]이다. 이 가운데 열 번째 계가 바로 청정계(淸淨戒)이며, 10가지 악업을 여의어서 10가지 선업을 받아 지니는 것이다.

또 '이세간품' 에서는 십선(十善)을 확대한 십종청정계(十種淸淨戒), 즉 10가지 청정한 계를 설한다. ①몸이 청정한 계, ②말이 청정한 계, ③마음이 청정한 계, ④모든 학처(學處)를 파(破)하지 않는 청정한 계, ⑤보리심을 수호하는 청정한 계, ⑥여래께서 제어하신 바를 수호하는 청정한 계, ⑦은밀하게 호지(護持)하는 청정한 계, ⑧모든 악을 짓지 않는 청정한 계, ⑨모든 것이 있다는 견해를 멀리 여의는 청정한 계, ⑩모든 중생을 수호하는 청정한 계이다.

앞의 세 가지는 차례대로 신청정계(身淸淨戒), 어청정계(語淸淨戒), 의청정계(意淸淨戒)라고 한다. 육체적인 행위의 청정함은 몸의 3가지 악(살생, 도둑질, 그릇된 음행)으로부터 보호한다. 언어적 행위의 청정함은 말의 4가지 허물(거짓말, 꾸미는 말, 험담, 이간질)을 여의게 한다. 의지적 행위의 청정함은 탐욕, 성냄, 그릇된 견해를 여의게 한다. 나아가 보살이 10가지 청정한 계에 안주하면 여래의 위없고 과실 없는 청정한 계를 얻는다고 한다.

이처럼 〈화엄경〉에서는 반야 계통의 경전과 달리 정계(淨戒)를 강조하며, 3가지 또는 10가지 청정한 계를 설한다. 궁극에는 성품이 청정해져야만 저절로 열 가지 악행을 여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선행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⑱ 고대 인도의 기녀(妓女)

## 망고숲 보시한 '암라팔리'

고대 인도사회에서 사용하던 가니까(ganika)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집단을 뜻하는 가나(gana)에 소속된 소유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가니까는 어떤 집단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일원들이 수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재산인 셈이다. 이것은 특정한 물건일 수도 있으며 인간과 그들의 노동력일 수도 있다. 이 가니까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인간이 바로 기녀이다. 베다 시대부터 석가모니 당시에도 가니까에 속했던 인물이 있었으며, 불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바로 암라팔리(Āmrapālī)이다. 암라팔리는 바이샬리 공동의 자산이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기녀보다는 관기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한 기녀는 여러 명이 알려져 있는데, 마투라에는 바사다밧따(Vasadavatta)가 있었고 라자그리하에는 살라바띠(Salavati)가 있었다. 그 가운데 암라팔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사례가 될 것이다.

암라팔리는 망고나무 밑에 버려진 아이였다. 그 후 망고숲 관리인의 자식으로 성장해서 결국 그 숲을 소유하기에 이른 여인이다. 이름에서 보듯 이 여인의 이름은 '어린 망고' 이다. '망고와 같이 달콤한 존재가 될 어린 싹' 이다. 입양될 때부터 아름다웠던 암라팔리는 공화국 바이샬리가 소유한 '망고' 그 자체였다. 여러 귀족들이 그녀를 탐내어 서로 분쟁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그녀를 나가르바두(nagarvadhu)로 지정한다. 즉, 지금의 공창(公娼)이었거나 국가 소속에 소속된 기녀(妓女) 정도의 인물이었다. 나가르바두는 시를 짓는 법과 악기, 춤과 같은 기예를 익혀 최고의 기녀로 만들어진다. 매춘이 합법적이었던 바이샬리에서 암라팔리는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불법에 귀의하고 자신의 망고나무숲을 승가에 바친 일화로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사회기관으로서 고대 인도사회에서 기녀가 등장했던 것은 대략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 정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후대의 불전문학인 〈본생담〉 등에 다양한 기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힌두문학을 통해서도 이들의 흔적을 추적해볼 수 있다. 베다 시대에는 제사를 치러주는 대가(daksina)로 말이나 소 등을 사제들에게 제공했지만 때로 여자 아이를 사원에 바치기도 했다.

이들은 사원에 들어가 '신들의 시종(devasasi)' 이 되어 사원축제를 위한 기녀의 역할을 하거나 사제들의 몸종이 되었다. 고대 인도의 기녀들이 춤과 노래 그리고 시작법을 포함해서 64가지의 기예를 익혔다. 이러한 기예는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인물들을 따로 배정해서 관리해왔다.

이들의 봉사료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높았는데 유명한 기녀일수록 당연히 그 대가는 치솟게 마련이었다. 하루 저녁의 봉사료는 은화로 대략 100냥 정도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시 널리 통용되던 화폐는 은화였으며 단위를 빠나(pana), 또는 까르샤빠나(Karsapana)를 사용했는데, 라자그리하의 살라바띠의 봉사료는 100빠나가 되었다고 한다. 이 봉사료는 관기들의 연봉이 대략 1000빠나에서 3000빠나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자이나교 문헌에 따르면 완벽한 아름다움과 기예를 보여주는 기녀들은 하루에 1000빠나를 받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귀족들과 큰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나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관청에 소속된 기녀들은 왕실에서 월급을 받았으며, 그 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으나 그들을 위해 마련된 부대시설과 물건들은 함부로 매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기녀들의 자식들에게 상속되어 상용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보시하는 일은 불가했었다. 암라팔리의 경우와 같이 뛰어난 기녀들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며, 암라팔리 자신은 축적된 재산으로 망고 숲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승가에 보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